

‘돌풍 넘어 태풍’ 정현, 호주오픈 4강



정현(22·한체대·삼성증권 후원·58위)이 테니스 샌드그렌(27·미국·97위)을 완파하고 호주오픈 4강에 올라 파란을 이어나갔다.

정현은 24일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펼쳐진 ‘호주오픈’(총상금 5500만 호주달러·약 463억원) 8강전에서 샌드그렌을 상대로 3-0(6-4 7-6(7-5) 6-3)

8강서 샌드그렌에 3-0 완승

4강서 ‘황제’ 페더러 만날 듯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회 돌풍의 두 선수가 4강 길목에서 만났다. 세계랭킹 4위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에 이어 자신의 우상인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14위)를 꺾은 정현은 한국 선수 최초로 그랜드슬램 대회 8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메이저대회 무승의 샌드그렌도 이번 대회 스타 바브린카(스위스·8위), 도미니크 팀(오스트리아·5위) 등을 꺾으며 반란에 반란을 거듭한 끝에 8강 무대를 밟았다. 어느 선수가 돌풍을 넘어 태풍급 파란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현은 한 수 위의 기량을 자랑으로 샌드그렌을 2시간28분 만에 제압했다. 3경기 연속 센터 코트인 로드 레이버에 선 정현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1만명 넘는 민원 관중 앞에서 샌드그렌보다 여유가 있었다. 1세트부터 샌드그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잠깐 포핸드에서 실수가 나오며 위기를 자초했다. 정현이 3번째 상대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한 뒤 자신의 서

브 게임을 지켜 3-1로 앞섰다. 서비스 게임을 차례로 주고받은 정현은 5-4에서 상대의 잇단 실수를 이끌어내며 러브 게임으로 완벽하게 1세트를 마무리했다. 2세트 들어서는 샌드그렌의 강 서브와 과감한 네트 플레이에 고전했다. 두 선수는 상대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접전을 펼쳤다. 3-5로 뒤진 가운데 정현이 듀스 끝에 샌드그렌의 서비스 게임을 가져온 뒤 자신의 게임을 지켜 동점을 만들었다. 완벽한 경기력으로 6-6을 만들며 타이 브레이크까지 끌고 간 정현은 긴장감을 극복하고 2세트까지 따냈다. 3세트는 수월하게 진행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샌드그렌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발실 또한 잦아졌다. 정현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대를 공략, 6-3으로 3세트를 가져오며 자신의 메이저대회 첫 4강 진출을 확정했다. 정현은 로저 페더러(스위스·2위)와 토마스 베르디흐(체코·20위)의 승자와 4강에서 맞붙는다. 정현의 4강전은 26일 오후 5시30분으로 예정됐다.



‘V12조준’ KIA타이거즈

2018시즌 크게 한턱 쏘다

김선빈 2억원 등 9000만원 이상 인상 7명

지난 시즌 11번째 통합 챔피언에 오른 KIA 타이거즈가 우승을 일궈낸 선수들에게 크게 한턱 쏘다. KIA는 2018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5명과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에 기여한 선수들의 연봉은 대폭 인상했다. 활약이 미미했던 선수들의 연봉도 사감폭을 최소화했다. 2016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고도 2년 연속 1년 계약을 맺은 양현종은 전년도 15억원에서 8억원 인상된 23억원을 받는다. 다소 기형적인 계약 구조인 양현종을 제외하면 개인 첫 타격왕을 차지한 김선빈이 지난해 8000만원에서 무려 2억원이 오른 2억8000만원(250%)으로 팀내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다. 두 차례 완봉승과 함께 선발진에 무게감을 더한 임기영은 3100만원에서 3억(319.4%)가 넘는 9900만원이 올라 1억3000만원으로 단숨에 역대 연봉 대열에 합류했다.

김윤동도 4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219.2%) 오른 1억5000만원, 포수 김민식도 6000만원에서 9000만원(150%) 오른 1억5000만원에 계약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안치홍은 2억2000만원에서 1억원 오른 3억2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SK 와이번스에서 이적해 성공적 시즌을 마친 외야수 이명기는 1억5000만원에서 1억원 경증된 2억5000만원을 받는다. 또 서동욱은 1억5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 최원준은 31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인상됐다. 베테랑 마무리 임창용은 지난해와 같은 5억원으로 동결했다. 김진우는 6000만원이 삭감되며 6000만원에 재계약했다. 9000만원 넘게 연봉이 큰 폭으로 오른 선수는 7명에 이른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지난해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연봉 삭감 대상은 14명이지만 삭감폭이 1000만원 이하인 선수가 10명으로 소폭에 그쳤다.

정현, 한국테니스 숫자 다 바꿨다

상금 7.5억·랭킹 30위내

태풍이 돌풍을 집어 삼켰다. 정현(22·한체대·삼성증권 후원·58위)이 메이저대회 사상 첫 4강에 진출하며 한국 테니스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갔다. 정현은 24일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펼쳐진 ‘호주오픈’(총상금 5500만 호주달러·

약 463억원) 8강전에서 테니스 샌드그렌(27·미국·97위)에 한 수 위의 기량을 자랑하며 3-0(6-4 7-6(7-5) 6-3) 완승을 거뒀다. 정현은 4강 진출을 확정했고 한국 테니스의 역사는 새로 쓰여지고 있다. 이미 2007년 9월 US오픈 남자 단식 이형택(42·은퇴) 이후 10년 4개월 만에 한국의 메이저 대회 16강 진출이라는 쾌거

를 이룬 데 이어 거침없는 질주를 계속했다. 종전까지 한국 선수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1981년 US오픈 여자 단식 이덕희(65·은퇴), 2000년과 2007년 US오픈 남자 단식 이형택의 16강이다. 정현은 단숨에 두 단계가 뛰어 넘었다. 8강 진출로 한국 선수 중 단일 대회 상금으로는 가장 많은 44만 호주달러(약 3억8000만원)를 확보했다. 4강 확정으로 배 가까운 무려 88만 호주달러(약 7억5000만원)를 손

에 쥐게 됐다. 물론 이는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2007년 이형택이 기록한 한국 테니스 최고 랭킹인 36위도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 정현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최고 랭킹인 44위에 올랐었다. 현재 58위인 랭킹은 이번 대회 4강 진출 확정으로 720점을 수확하며 기존 857점을 더해 1577점이 된다. 이는 28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이형택의 36위를 넘어 한국 테니스 사상 처음으로 30위 이내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류현진, 오늘 출국

명예회복 위해 본격 담금질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1·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여섯 번째 시즌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류현진의 국내 매니지먼트사 에이스펙코퍼레이션은 23일 “류현진이 국내 일정을 마치고 25일 인천 공항을 통해 LA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약 두 달간의 국내 체류 기간동안 결과와 개인 훈련에 힘쓴 류현진은 LA에 도착한 뒤 애리조나로 이동해 스프링캠프에 진검하며 본격적으로 2018시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류현진 선수를 응원해주는 국내 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류현진 선수에게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오는 2월14일부터 애리조나주 캐밀백랜치의 스프링캠프에서 포수조와 함께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지난해 다소 아쉬운 성적을 올린 류현진은 올해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무엇보다 어깨, 팔꿈치 부상에서 벗어나 긍정적이다.

류현진은 지난해 25경기(24경기 선발)에 등판, 126이닝을 던져 5승9패 평균자책점 3.77을 기록했다.

뉴스스

“류현진, 다저스 선발 진입은 물음표...과거 부상 탓”

美 언론, 로테이션 예측에도 부상 우려



류현진(31·LA 다저스)은 2018시즌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상 이력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어 이를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스포츠 매체 ‘블리처 리포트’는 24일 ‘다저스는 강속구 투수 워커 블러로 다르빗슈 유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기사에서 2018시즌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을 전망했다. 블리처리포트는 이번 시즌 다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클레이턴 커

쇼, 리치 힐, 엘릭스 우드, 마에다 겐타, 류현진 순으로 다저스의 선발진을 예측했다. 여기에 블러가 선발진에 투입된다면 자유계약선수(FA)가 된 다르빗슈의 공백을 외부 전력 보강 없이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블러는 2015년 신인드래프트에서 다저스 1라운드 지명된 유망주다. 최고 구속 98~99마일(약 157~159km)의 강속구 투수로 지난해 9월 메이저리그 무대를 처음 밟았다. 볼펜에서 뛰며 8경기 9이닝 1

승 평균자책점 7.71을 기록, 아직은 미완의 대기지만 다가오는 시즌 선발투수로 뛰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블러의 선발진 합류 시나리오는 류현진에게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저스 몇몇 선발진의 불안 요소들이 블러의 로테이션 진입을 더욱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블리처리포트는 “최근 부상에 시달린(injury-plagued) 류현진 등 몇몇 선수들은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다. 또 다른 유망주인 홀리우 유리아스는 어깨 수술에서 회복 중”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어깨와 2016년 팔꿈치 부상으로 잇단 수술대에 올랐던 류현진은 지난해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2017시즌 25경기에 출전해 126이닝 5승 9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77의 성적을 남겼다.

그러나 부상 이전 192이닝(2013), 152이닝(2014)을 소화했던 때와 비교하면 아직은 풀타임을 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류현진은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게 된다. 부상 우려를 완전히 씻어낸다면 대박 계약도 가능하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류현진은 25일 미국으로 가 새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뉴스스

‘박항서 매직’은 계속 된다

박항서 매직’은 계속된다. 베트남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은 23일 중국 창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대회 준결승에서 2-2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했다.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AFC 주관 대륙 챔피언십에서 결승에



후반 43분에 황하이의 날카로운 중거리슛으로 승부를 연장자로 끌고 갔다.

두 팀은 연장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다.

베트남, 카타르 잡고 U-23 결승행...사상 최초

한국, 준결승서 우즈베크에 1-4 패배...만남 불발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8강에서 이라크를 상대로도 승부차기까지 벌여 연이어 명승부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은 3개월 만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2위의 약체 베트남을 아시아 정상권으로 이끌고 있다.

축구 인기가 대단한 베트남은 박 감독과 대표팀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응원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베트남은 1-2로 패색이 짙은

베트남은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키커가 실축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4명이 모두 성공하며 결승 진출을 이뤘다. 결승은 27일 벌어진다.

한편 김병길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은 23일 중국 쿤산의 쿤산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대회 준결승에서 연장 승부 끝에 1-4로 무릎을 꿇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의 진검승부를 기대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뉴스스